

현장 중심 소통·공감 행정 펼쳐

남원시, 23개 읍면동 찾아가는 현장 시장실 마무리... 건의사항 청취·의견 나뉨

남원시 관계자는 지난 7월 초 시작한 23개 읍면동 대상 찾아가는 현장 시장실이 인월면을 끝으로 지난 26일 마무리 되었다고 밝혔다.

현장 시장실은 23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이통장 및 주요 직능단체장들에게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 직접 청취하며 함께 해법을 찾아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추진된 행사로, 읍면동별로 총 200여건 정도의 건의사항 및 시정에 대한 의견으로 가득 채워진 시간이었다.



남원시는 지난 7월 초 시작한 23개 읍면동 대상 찾아가는 현장 시장실이 인월면을 끝으로 지난 26일 마무리 되었다.

최 시장은 공모사업 대응 등 바쁜 일정속에서도 506개 마을 이통장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으며, 특히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과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번 9월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연내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향후 행정절차 진행과 계획수립 등을 거쳐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관계자는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반응도 뜨거웠다고 전하며, 한 시민은 최 시장의 시장 ppt 설명에 대해 언급하면서 "남원시 시정에 대한 큰 그림

부터 소규모 소위사업 관련 건의사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였다"며,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마무리에서 최 시장은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필요한 부분은 시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며 "현장 중심의 소통·공감 행정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원시는 앞으로도 건의사항 및 추진상황 보고회 등의 분기별 추진 상황 점검을 민원인에게 수시 안내 등 집중 관리를 통해 시민 불편을 빠르게 해소해 나갈 계획이며, 기업체 및 사회복지 시설 등의 현장 민원 반영을 위한 남원시장이 간다 등 진정성 있는 소통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이백 행복나눔센터 준공

문화복지시설 지역주민 소통·화합 공간 기대

남원시는 지난 26일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으로 추진한 이백 행복나눔센터의 준공식을 가졌다.

기초생활거점 사업이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으로 면소재지 등 배후마을에 대한 일상적 서비스 공급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거점을 육성해 중심지의 기능을 보완하여 마을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남원시는 2020년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신규 공모를 통해 총사업비 40억원 규모로 이백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을 확정, 2020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사업을 추진, 조성된 시설은 '이백 행복나눔센터'라는 명칭의 문화복지시설로 지상 1층 연면적 875.36㎡ 규모의 시설로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 및 여가생활을 위한 다목적 강당, 마을카페, 동아리방 등을 조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또한, 주민들이 조성된 시설물을 통해 주도적으로 이백면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리더교육, 활동가 육성,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화합 문화행사 등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추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온라인 학습플랫폼 수강생 모집

남원시는 29일부터 오는 8월 2일까지 배움e-스튜디오 온라인 학습플랫폼 수강생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학습플랫폼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여 스마트 평생학습 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된 온라인 특화 과정으로, 장소 구애없이 학습자들에게 다양한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어 매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학습플랫폼은 과정별로 매주 1회 15회차로 구성, 진행되며 프로그램은 △ 줌으로 즐기는 똑딱똑딱 목공프로그램을 비롯해 △능력 있는 직인으로 인정받는 스피치의 비밀 △장기요양기관 창업 및 합리적·안정적 운영 전략 △AI 활용 누구나 쉽게 그림책 작가

(전자책 출판) △스마트스토어 운영과 온라인 상품판매 △캡컷으로 내만의 느낌을 담은 영상시 만들기 △비스포크 여성복 만들기 △수성펜 일러스트 △명장과 함께하는 도예 홈 클래스 △초보자도 이해하는 미술 △정리수납 전문가 등 총 11개 과정이다.

18세 이상 남원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수강료는 무료, 접수는 남원시통합예약·신청시스템을 통해 선착순으로 가능하다. /남원=김기두 기자

농산물 안전성 세계에서 인정받아

순창군, 영국 식품환경연구회 주관 잔류농약 숙련도 평가 '우수'

순창군이 농산물 안전성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순창군농업기술센터가 세계적 권위의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 국제 비교숙련도 평가(FAPAS)에서 '우수' 판정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유동 시 필요한 잔류농약, 중금속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영국 식품환경연구회(FERA)가 주관하는 이 평가는 농산물의 잔류농약성분을 분석해 검증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국제 비교 숙련도 테스트로, 매년 전 세계의 정부기관, 연구소, 민간분석기관 등이 기관의 잔류농약 성분 분석에 대한 정확도와 신뢰도를 검증받고 있다.

이번 평가는 전 세계 59개 분석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기관인 식품환경연구회 측은 지난 5월 동일한 시료(토마토 퓨레)가 각 기관에 배포했으며, 기관별로 7월 12일까지 제출된 잔류농약 분석 결과값을 비교해 분석능력을 평가했다.

순창군농업기술센터는 10개 성분에 대한 결과값을 제출했으며, 제출된 모든 성분에서 신뢰성 범위인 표준점수(z-score) ±2.0 이내를 만족해 '우수'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현재 순창군농업기술센터 농산물안전성분석실에서는 매년 1,200여 건의 관내 친환경 농산물·GAP 인증 또는

최열일 순창군수는 "최고 수준의 농약잔류 분석 능력을 유지하는 것은 순창군 농산물의 품질 경쟁력 향상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 소비자 신뢰도 확보에 매우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순창군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순창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순창군은 최근 전세사기 등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관내 거주하는 일정 소득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자 기준은 전세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 소득(청년)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다.

지원금액은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 최대 30만원까지 지급되며, 신청을 희망하는 무주택 임차인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등 서류를 지참해 군청 농촌활력과(농촌주거팀 660-1771)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무주택 임차인의 안타까운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주거 안정을 돕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순창군에 정착하는 데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출생부터 성장까지' 분야별 정책 홍보

남원시는 지난 25일, 순창문화예술회관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출생부터 성장까지 분야별 정책에 대해 현장에 나가 시민들과 소통하며 적극 홍보를 시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출생을 제고와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출산 지원 대책과 양육문화 환경 조성, 교육·장학사업 분야에 대한 폭넓은 정책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만든 리플릿 자료를 배부하며 현장의 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임신 전부터 출산 후까지 다양

한 지원인 △한방난임 치료치료 △출생육아금 지원 △신생아 탄생 축하 기념품 지원 △공휴일 원정진료 교통비 지원 보육·돌봄에 대한 지원인 △삼마(애) 간식 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아이맘행복누리센터 운영 △돌봄책이상 자녀 아이돌봄서비스 무료지원 등, 청소년·교육사업으로 △이동급식 △부모학교 △청소년수련관 등 복지시설 안내 △청소년 진로탐색 박람회 개최 △글로벌 미래 인재 육성사업 등을 안내하며 누락 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 지사면 행복보장협 복달음 팍빙수 나눔

지사면 행복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길영, 변현섭)가 폭염이 한창인 지난 25일(중복) 지사면 사무소 앞마당에서 예성공부방(위원장 황지용) 학생들과 함께 지역 어르신들께 '복달음 팍빙수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지사면 행복보장협의체 위원들과 예성공부방 학생들은 비쁜외에도 더위를 시원하게 날려 줄 팍빙수를 직접 만들어 방문민원인 및 1개 마을 경로당, 기관에 직접 전달했다.

한 어르신은 "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이렇게 시원하게 대접받게 되어 더위를 이기는 것은 물론 요즘 같은 시대에 어린 학생들의 예쁜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아 정말 좋다"고 전했다.

변현섭 민간위원장은 "여름방학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을 위하여 매년 팍빙수 행사를 해주시는 예성공부방 학생들과 협의체 위원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임실=진종영 기자

임실 신덕면 행복보장협의체, 중복 맞아 행복밥상 나눔

신덕면 행복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소지현, 김선기)가 지난 25일 중복을 맞아 관내 저소득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70가구에 삼계탕과 제철 과일을 전달했다.

이번 '행복밥상나눔'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와 신덕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주민위원회(위원장 신동환)가 지역역량강화(S/W)

사업의 일환으로 어르신들의 원기 회복을 돕고 취약계층의 인부를 살피고자 행사를 후원함으로써 진행된 사업이다.

협의체 회원들과 자원봉사자 등 30여 명이 삼계탕 70인분을 직접 끓이고 함께 전달할 제철 과일도 정성스럽게 마련해 각 가정을 방문해 전달하고 안부 확인도 하는 등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임실=진종영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N치즈

벨기에 출신 지명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